

##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감시체계 강화에 '총력'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오전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자치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대비와 점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 유관기관 긴급회의... 정보 공유·지원사항 논의 비상방역대책반 24시간 운영·확산 대비책 마련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즉시 신고해야'

광주시는 28일 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4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5개 자치구 부구청장, 광주경찰청, 광주시의사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공유,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는 관내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외에서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 및 자치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반 운영 △대 1 전담공무원 지정 등을 통한 접촉자 관리 △시 보건환경연구

원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자치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의료기관 대응 강화 안내 문 안내 △선별의료기관 6곳·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재정비 △의료기관 대응 강화 협조 요청 △지역사회 확산 대비 접촉자 격리시설 사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하고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지역 능동감시 중인 대상자는 2명으로, 광주시는 매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외 발생 상황을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확진자 확대에 따라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는 대국민용, 의료인용 맞춤형 포스터 및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 예방수칙 안내문자 발송, 전광판을 통한 정보 송출,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항 게시 등을 추진한다.

자치구도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접촉자 명단 통보 시 매뉴얼에 따른 대처 등을 실시한다. 광주시의사회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 방문 시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치추적 등을 협조하고 응급환자 및 검체 이송 등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역학조사, 진료병원 지정, 환자검사 진단 등 방역감시체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메르스 당시 청정지역을 지켜내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 개최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도 피해가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4일 도,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 긴급 방역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시군 방역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광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큰 피해가 발생된다"며 "방역대책반을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선별의료기관을 철저히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시설 및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중국을 다녀오거나 접촉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있을 경우 예방수칙 홍보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먼저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했고 국립목포검역소와 연계해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했다. 관내 의료기관 등에 호흡기 질환자 모니터링과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선별진료 의료기관도 지정했다.

김 지사는 23일에도 무안공항을 방문해 중국 여행객 검역상황을 점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중국지역 여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지자체도 중국여행을 자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

항상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기자협회회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올 한해는 전남도민일보 임직원 모두가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들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힘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정을 나누면서 소원성취하는 한해를 만듭시다.

떠오르는 태양의 힘찬 기운 받으셔서 희망차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전국기자협회장 김경 올림

##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본격 추진

전남도, 말산업 경쟁력 강화... 2024년까지 742억 투입

전라남도는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4개 분야 74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남도 말산업은 2000년 이후 정부 말산업 육성방향이 승마산업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 설치, 학생승마체험 위주의 승마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말 사육두수는 738두로 승마인구와 말 관련 업체(조련업, 경매업) 수가 적어 제주도,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같은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말산업 정책에 맞춰 그동안의 승마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바닷가, 해안선, 섬

등 전남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개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말 사육두수는 지난해 738두에서 2024년 2천두로 늘리고, 승마시설도 지난해 31개소에서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또 유소년 승마단의 경우 지난해 8개소에서 2024년까지 15개소로, 학생승마 역시 연간 1만명을 늘려나가는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영암군**

**문화관광의 중심지**

**여아 영암**

영암 백리 벚꽃길

영암 구림전통마을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월출산 국립공원

영인문화축제